

데스크 시각



박진현
제작국장·문화선임기자

‘비 오는 날보다 미술관...’ 독일 베를린 관광청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바로 눈에 띄는 ‘낚시성’ 문구다. 이게 무슨 말이고 하니, 베를린에는 ‘일년에 비가 내리는 날보다 더 많은 170개의 미술관이 있다’(There are some 170 museums in Berlin, that more museums than rainy days in a year)라는 뜻이다. 그러나 평소 미술관 나들이를 즐기는 이들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미술관의 천국, 베를린’으로 오라는 의미일 터. 정말 그럴까? 베를린 취재를 떠나기 전 내 머릿속에서 맴돌던 궁금증이였다. 그도 그럴 것이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 런던의 영국박물관(대영박물관),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처럼 대중적인 인지도가 높은 이들 미술관과는 달리 베를린 하면 금방 떠오르는 ‘간판 미술관’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날 말 취재차 둘러본 베를린 슈프레 강가의 ‘박물관 섬’(Museuminsel: Museum Island)은 이런 나의 과문함에 부끄러움을 안겨 주었다. 지난해 방문객 1530만 명을 유치

광주 관광, 결국은 콘텐츠다

해 유럽의 관광대국 스페인과 프랑스를 바짝 쫓고 있는 독일의 저력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구 국립박물관, 신 박물관, 구 내셔널 갤러리, 보데 박물관, 페르가몬 박물관 등 다섯 개 박물관이 웅기종기 모여 있는 ‘박물관 섬’은 고대 유적부터 현대미술에 이르기까지 6000년 인류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세계유산의 보고였다.

‘박물관 섬’ 가 보셨나요

첫 번째로 둘러본 미술관은 구 국립박물관이었다. 고대 그리스·로마와 중동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소장하고 있는 페르가몬 박물관과 고대 이집트의 왕비 ‘네페르티티’(Nofretete)의 흉상을 소장한 신 박물관을 제치고, 특별전이 열리고 있던 이곳을 가장 먼저 찾은 건 독일 미술의 어제와 오늘을 알고 싶어서였다. 바우하우스 개교 100주년을 기념한 특별전은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다. 1919년 건축가 발터 그로피우스가 설립한 바우하우스는 회화, 조각, 건축, 제품 디자인, 사진, 영화에 이르기까지 현대 예술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독특한 조형 양식이다. 이에 따라 베를린, 슈투트가르트, 뮌헨 등 주요 도시의 관광청과 미술관들은 바우하우스 100주년 특별 기획전과 관광 이벤트를 내걸고 관광객을 유치해 나가고 있다. 그중에서도 오는 11월 9일로 베를린 장벽 붕괴 30주년을 맞는 베를린의 행보

는 특히 인상적이었다. ‘30주년’을 정치적 행사로 국한시키지 않고 바우하우스 100주년과 묶어 상상력과 기획력을 집약한 공식 기념행사와 메가 페스티벌, 100여 개의 문화 이벤트를 마련했다. 말하자면 베를린을 전 세계에 ‘뜨우느’ 마케팅의 호재로 삼은 것이다. 비단 베를린뿐만이 아니다. 자동차의 메카로 불리는 슈투트가르트와 뮌헨은 ‘바우하우스 100주년과 자동차’를 모티프로 삼은 차별화된 문화 행사를 대거 선보이고 있다. 진원지는 다를 아닌 슈투트가르트의 벤츠 박물관과 뮌헨의 BMW 박물관이다. 인구 62만 명의 슈투트가르트는 벤츠와 포르세를 생산하는 공업도시이지만 근래 관광도시로 외연을 넓히는 중이다. 이들 자동차박물관 개관 이후 20년 만에 관광객들의 숙박일이 155만 3727일에서 391만1781일로 두 배 이상 늘어나는 등 시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떠올랐다고 한다.

‘5월’과 ‘자동차’의 콜라보

인구 140만 명의 뮌헨 역시 매년 300만 명의 방문객이 다녀가는 BMW 박물관과 BMW 벨트(Belt: 영어로 ‘월드’라는 의미)를 통해 글로벌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시립미술관 격인 알테 피나코테크, 노이에 피나코테크 등의 문화 기관과 연계한 차별화 전략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신행 모델을 홍보하는 비즈니스 개념의 자동차 박

물관이 아니라 BMW의 기술과 디자인을 즐기는 체험관 그리고 콘서트홀과 레스토랑이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한 덕분이다. 이들 도시의 관광 전략을 보면 관광 불모지인 광주를 생각한다. 특히 베를린 장벽 붕괴 30주년을 도시 마케팅의 기회로 활용하는 베를린, 자동차 박물관을 독창적인 문화 콘텐츠로 키운 슈투트가르트와 뮌헨. 이들 도시는 5·18 민주화쟁과 50여 년 역사의 گیا자자동차 공장을 갖고 있는 광주와 유사점이 많다. 실제로 뮌헨 BMW 박물관을 방문한 지난 6월28일, 공공롭게도 한국에서 날아 온 첫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공장 설립투자 협약식 뉴스 때문인지, 광주에도 근사한 ‘자동차 박물관’이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는 것이었다. 광주도 이들 선진 자동차 자처럼 자동차 생산단지들 미디어아트와 문화로 특화시킨 박물관이나 체험관으로 만든다면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이 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과 함께. 오는 2020년은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다. 광주시와 관광·문화예술 기관들은 지금부터라도 전방위 협력 TF팀을 꾸려 ‘5월의 세계화’를 위한 대장정에 들어가야 한다. 베를린시와 관광청이 2~3년 전부터 치밀한 기획과 콜라보로 2019년을 ‘베를린 르네상스’의 해’로 꽃피운 것처럼. 결국, 광주 관광의 미래는 콘텐츠다. 다른 곳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그런. /jhpark@kwangju.co.kr

은펜칼럼



옥영석
농협 하나로유류 단장

전기도 들어오지 않던 시골구석에서 그것도 삼복더위 중에 태어난 내게 어른 신들은 지리지 복도 없는 놈이라고 혀를 찼다. 가을, 겨울이라도 태어났으면 생일상이라도 차려줄 수 있었지만 땀방만 내리찍는 오뉴월 생에게는 보리개떡도 못 먹일 판이니 위로인지 핀잔인지 알 수 없는 말이었다. 하기가 어른들 생신이면 몰라도 가을인들 애들 생일에 떡 해주는 집은 본적이 없고 인절미나 절편은 제사 예나 먹을 수 있던 때가 70년대였다. 해거름이면 으레 마당에 놓인 평생 옆에 모깃불을 피워놓고 식사하는 것이 그 시절 흔한 저녁 풍경이었다. 종일 땀방아래서 일하다 온 가족이 모여 먹는 한여름 벌시는 팔죽이었다. 동짓달에 먹는 팔죽은 찹쌀과 팥쌀 가루를 돌돌 말아 새알

겨울엔 냉면, 삼복더위엔 이 맛

을 빚어 넣지만 한여름 팔죽은 대개 갈국수를 만들어 넣는다. 밀가루가 흔하던 시절이었으니 물 부어 반죽하고 흥우개로 밀어 썰어 내면 동지 팔죽보다 만들기가 쉬운 편이다. ‘타닥 타닥’ 모깃불로 올린 콩 줄기 타는 소리를 들으며 평상에서 먹던 팔죽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향연이었다. 뜨거울 때도 맛있지만 아침까지 남아 식어 빠지고 손가락으로 먹어야 할 만큼 굳어있어도 불면 날아갈 듯한 보리밥에 비할 바 아니었으니 말이다. 팔은 풍과는 사촌 뻘 되는 잠곡으로 소두 혹은 적두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콩이라 부르는 콩나물 콩에 비해 작고 붉은 빛을 띠고 있어서 예로부터 귀신을 쫓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여겼다. 동짓날 팔죽을 쑤어 사당에 떠다 놓고 차례를 지낸 뒤 집안 곳곳에 한 그릇씩 놓고는 대문, 벽, 문설주 등에 국물을 흘뿌렸다. 그렇게 하면 액을 막고 귀신을 쫓을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동네에 초상이 나면 팔죽을 쑤어 가져갔고, 명절이나 고사를 지낼 때 상에 올리는 시루떡은 팔죽을 사용하며, 백일과 돌잔치 상에 수수팔떡이 올라가는 것도 그런 주술적 이유 때문이다.

단백질과 당질이 주성분인 팔에는 지방과 탄수화물, 미네랄, 비타민도 많이 들어 있다. 특히 쌀을 주식으로 하는 우리에게 부족하기 쉬운 비타민 B1이 곡류 중에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고,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은 노화와 암의 원인이 되는 활성 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또한 체장과 신장의 기능을 강화하여 당뇨 예방에도 효과적이고, 다른 곡물에 비해 10배 이상 들어있는 칼륨은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해줘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된다. 식이 섬유가 풍부하여 변비와 다이어트에 좋을 뿐 아니라, 적당히 갈아 얼굴에 발라두면 각종 피부염과 기미, 주근깨 등을 치료하는데 그만이다. 설량이 줄 수 없는 풍부하고 그윽한 맛으로 떡 외에도 찜빵이나 호두과자에 넣는 소로도 가장 어울리는 재료지만, 안타까운 것은 수입산 가격이 국내산의 반에도 미치지 않으니, 밖에서 사먹는 팔치고 국내산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장마철이러지만 더위가 기승이다. 습도가 높고 추위가 덜한 날씨에는 짜증까지 높여 후덥지근한 날씨에는 짜증이 일게 마련이고 입맛마저 잃어버리기 쉽다. 옛부터 이런 삼복에는 더위를 이겨내고 몸의 기운을 북돋워주는 음식을 먹

고 시원한 곳에서 몸을 쉬게 했는데, 이를 복달임이라 하여 궁중이나 상류층에서는 소고기나 민어탕을, 서민들은 개장국이 나 닭고기, 팔죽으로 보양했다고 한다. 시대가 달라지긴 했어도 세시풍속으로 절기에 맞춰 먹는 음식이나 이런저런 탕을 찾아 다니는 게 무더위 속 한 때의 즐거움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요즘같은 영양 과잉 시대에 이런 고열량식이 건강에 유익할지는 생각해볼 일이다. 점잖게 민어탕이라도 맛볼 수 있다면 좋겠지만 아무리 흔해졌다고 민어집이 골목마다 있는 것도 아니고, 가격은 소고기 뽕 찹 지경이니 팔죽은 요맘때 즐길 수 있는 최상의 선택이 아닐 수 없다. 전통적으로 정선, 영월, 평창 등 강원도가 팔 주산지지만 몇 해 전부터 신안, 함평, 무안, 나주 등 우리 고장에서 재배 면적이 늘고 있는데, 기름진 음식만 찾지 말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 팔 갈국수 한 번 만들어보자. 차가운 냉면이 겨울 음식이라면 뜨거울 팔죽은 삼복더위에 먹는 복달임으로 제격이다. 몸보신도 몸보신이거나 아이들 허 끝에 남을 추억을 위해서라도 말이다.

기고



변길현
광주시립미술관 학예연구실장

광주는 지금 2019 FINA 세계수영선수권대회와 함께 뜨겁고도 시원한 여름을 맞이하고 있다. TV에서만 보던 세계적 선수들과 수영 경기를 우리 집 가까이 있는 국제 수영 경기장에서 직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이 경기의 개최를 위해 수많은 광주시민들과 체육인들, 공무원들의 노고와 헌신이 있었다. 오로지 광주의 이름을 전 세계에 알리고 광주를 세계적 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한 자발적 노력이었다. 이제 우리 일반 시민들이 기여할 일은 이 축제를 즐기는 일 뿐이다. 소중한 개최한 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기 위하여, 수영선수권대회를 맞아 광주를 방

즐기자, 수영 광주!

문한 내외국인들과 광주시민들이 광주를 즐길 수 있는 관광 및 문화계의 핫 플레이스를 몇 군데 소개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양림동이다. 양림동은 광주의 근대 역사와 광주시민들의 일상적 삶을 보여주는 걷기만 해도 좋은 곳이다. 선교사 사택과 오래된 한옥을 보면서 광주의 근대기 역사를 이해할 수 있고, 이제는 찾아보기도 힘든 옛날 그대로의 골목길을 걸으면 서 광주시민들의 삶을 느껴볼 수 있다. 새로 조성된 카페와 맛있는 이탈리아 레스토랑도 많아 먹거리까지 즐길 수 있다. 한낮 보다는 선선한 저녁 무렵이 더욱 좋겠다. 두 번째는 중외공원에 있는 광주시립미술관이다. 미향 광주를 보여주자 기획된 광주시립미술관의 ‘맛있는 미술관’전은 멀리서 광주를 방문한 관광객 뿐 아니라 광주의 어린이를 비롯한 가족 중심의 관람객들에게 보여줄 풍성한 볼거리를 준비하였다. 전시장 내에 별도의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도 있어 주말이면 참여작가들이 지도하는 맛 그리기 체험 행사도 진행된다. 세 번째는 광주문화예술회관이 야심

차게 준비한 ‘광주 국악 상설 공연’이다. 국악 상설 공연은 평소 국악을 접하기 힘든 내외국인들에게 광주를 즐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단, 방문하기 전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사전에 홈페이지에서 조사를 하고 가는 것이 좋다. 네 번째는 예술의 거리이다. 외국인들은 자기 나라에 없는 것, 광주만의 것을 좋아한다. 예술의 거리에서는 광주 작가들의 각종 전시가 항상 열리고 있다. 광주의 몽마르트, 광주의 인사동과 같은 곳이다. 어디를 둘러보면 외국인들에게 예술을 사랑한다는 선선한 저녁 무렵이 더욱 좋겠다. 다섯 번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어디든 들어서면 세계 최고 수준의 전시와 교육, 공연들이 다양하게 펼쳐진다. 특별히 수영선수권대회 및 여름방학을 맞아 8월 11일 까지 어린이 물놀이장인 워터 슬라이드를 개장한다. 워터 파크를 즐기러 다른 지역까지 가기 힘든 어린이 및 가족들은 여기를 방문하는 것이 가성비가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여섯 번째 무등산 입구에 있는 전통문화

관도 빼놓으면 섭섭하다. 평일에도 각종 공연과 체험 행사들이 있고, 특별히 수영 선수권대회를 맞아 토요일에 야간 개장을 하여 국악 공연을 상설 공연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립 5·18 민주묘지는 외국인들에게 특별히 인기 있는 곳이다. 광주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는 세계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의 역사를 알고 나서 큰 감동을 받는다. 광주를 알릴 수 있는 대표적인 곳이며, 많은 외국인들이 가고 싶어 하는 곳이므로 추천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열거한 광주의 핫 플레이스 중에서도 울여름 최고의 핫 플레이스는 당연히 지금 아니면 볼 수 없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열리고 있는 수영 경기장이다. 남부대학교, 광주여대, 조선대학교, 영주종합체육관, 여수 엑스포해양공원 등에서 벌어지는 수영 경기의 관람은 일생에 한번 있는 기회이다. 울여름의 피서지는 단연코 강원도나 해외보다 광주가 최고다. 광주가 정성껏 준비한 수영 경기장에서 세계적 수영 선수들과 함께 더위도 피하고 울여름의 추억을 남기시기를 권유 드린다.

社說

아베의 치졸한 보복에 맞서는 우리의 자세

고등학교 학생들도 일본 제품 불매운동 동참에 나섰다. 광주제일고 학생회는 어제 일본의 수출 규제 등에 맞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이기로 했다. 학생들이 운영하고 있는 교내 사회적협동조합에서도 일본 음료를 판매하지 않기로 했다. 아베 일본 총리의 치졸한 경제 보복에 맞서 각계각층의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들불처럼 확산되고 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도 어제 “일본이 수출규제를 철회하지 않고 경제전쟁을 도발한다면 전 국민과 함께 신(新)물산장려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물산장려운동은 3·1운동 후 지식인층 및 대자주들이 중심이 되어 일상용품은 우리 토산품을 상용해 우리 산업 경제를 육성시키기 자는 기치 아래 민족정신을 일깨우며 앞장서 벌여 나간 운동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참정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과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수원시

장), 황명선 상임부회장(논산시장) 등 협의회 소속 시장·군수·구청장 일동은 이날 “아베 정부의 보복적 수출 규제에 대해 조속한 철회를 촉구한다”며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또한 일본 제품 불매운동과 함께 “일본의 수출 규제가 철회될 때까지 공무수행을 위한 일본 방문을 중단할 것을 천명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 아베 총리는 참의원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한일 간 신뢰 문제를 제기하며 초강경 자세를 보이고 있다. (경제징용 판결에 대한) 대항 조치가 아니라고 또다시 역지를 부리면서 한국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이에 청와대는 아베 총리를 향해 “최소한의 선을 지키며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게 양 국민을 위해 할 일”이라고 반박에 나섰다. 아베 총리는 이쯤해서 한·일 갈등을 부추기는 공세를 멈춰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 국민은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 따끔하게 본대를 보여 줄 수밖에 없다.

건축공사장의 부실 가림막이 사고 부른다

광주 도심 곳곳의 건축 공사 현장에 설치된 가림막 시설이 부실해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마저 해치고 있다고 한다. 건설사들이 수익에만 치중해 저렴한 마대 소재 천 조각으로 공사장 주변을 형식적으로 가려 놓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 등에 따르면 현재 광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과 재건축, 주거 환경 개선 등 도심 정비 사업 현장은 모두 20곳에 이른다. 이들 공사 현장에서는 분진과 소음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가림막을 설치하고 있다. 문제는 대다수 건설사들이 예산 절감 등을 이유로 저가의 마대 소재 가림막 시설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재질 자체가 약하다 보니 시설이 무너지는 사고도 빈번하다. 지난 20일 동구지산동 재개발 구역에서는 태풍 다나스의 영향으로 아파트 5층 높이의 가림막이 무너지면서 인근 차량과 건물을 덮쳤다. 다행히 새벽 시간대여서 인명 피해는 없었

지만, 인근 주민들은 불안은 여전하다. 지난 5월 27일에는 계림2구역 주택 재개발 공사 현장의 가림막이 넘어지기도 했다. 광주일보 취재 팀이 그제 찾아간 북구 중흥3동과 우산동 재개발 공사장 곳곳에도 찢어진 가림막이 흉물처럼 바람에 필적이고 있었다. 파손된 가림막은 소음·먼지조차 제대로 차단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처럼 가림막이 부실한 것은 법규 미비 때문이기도 하다. 국토교통부의 ‘가설 공사 표준 시방서’를 보면 도심 공사장 가설 울타리를 3m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규격이나 재질은 명시돼 있지 않다. 따라서 우선 가림막 소재를 마대에서 철판으로 대체하도록 하는 등 법적 보완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광주시 등은 공사장 가설 울타리 및 가림막 설치 기준이나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제정해 도시 경관 향상과 안전 제고에 힘써야 할 것이다.

無等鼓

전 세계 수영인들의 축제인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중반부로 접어들면서 초반 부진을 딛고 ‘흥행몰이’에 들어갔다. 이번 대회는 역대 최대 규모인 196개국 5600여 명의 선수들이 참여한 데다, 세계적인 수영 스타들의 멋진 경기 등이 흥행 요소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개최국인 우리 대표 팀이 저조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다이빙 여자 1m 스프링보드에서 김서영 선수가 동메달을 획득한 것 말고는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가 없다. 한국 대표 팀은 이번 대회에서 또 한 번 세계 무대의 높은 벽을 실감해야 했다. 다만 수구와 오픈워터 등 이들도 낮은 종목에서 대표 팀 선수들이 매 경기 최선을 다함으로써, 수영 불모지에 ‘희망’을 싣 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한민국이 개최국인데도 두드러진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는 배경에는 비인기 종목인 수영 인구가 적은 데다 경기장 등 시설들이 그만큼 다른 국가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이다. 여자 수구만 봐도 대회 개최국으로서 참가 자격을 얻긴 했지만, 국내에서 낮은 인지도만큼 선수가 없어 경쟁

선수들 중심으로 개막을 불과 몇 개월 앞두고 대표 팀을 꾸려야 했기 때문에 어려운 경기를 펼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일본 등 선진국들은 안전교육의 하나로 생존을 위한 ‘생존 수영’ 교육을 초등학교부터 일찌감치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체육으로서 수영 저변 확대가 이뤄져 왔다. 반면 한국은 어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수년 이내에 막대한 선수처럼 세계 무대에서 통할 수 있는 실력 있는 선수들이 쏟아져 나오도록 해야 한다. /최원일 정치부 부장 cki@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주 1(일간)		우)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직구)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체육부 220-0633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예향부 220-0692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사진부 220-0694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